

진단·보증은 물론 환불까지 지원 비대면거래로 활로 찾는 중고차

코로나사태 장기화·저유가시대
자기차량 구매 하는 소비자 증가

중고차업계, 신뢰도 향상 총력
스마트 옥션 등 차별화 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중고차 비대면 거래 증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유래 없는 저유가 시대로 자기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고차 시장도 소비 감소가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지만 비대면 거래와 차별화 서비스를 앞세워 예상보다 선방하는 분위기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가양동 서서울모터리움에서 만난 더오도 나광열 이사는 코로나

19 장기화 사태에 대해 “한 달에 스무대 정도를 판매하는 딜러들이 코로나19 이후에는 한 자릿수 정도밖에 팔지 못한다”며 “하지만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아니다. 카니발 같은 패밀리카나 경차 등의 매출은 줄었지만, 생업을 위한 차들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대중교통을 꺼리며 잠재고객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나 이사는 중고차 유통 플랫폼인 엔카닷컴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중고차 판매를 하고 있다. 그는 “그렇다고 중고차 업계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죽겠다는 주변 사람도 여럿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 서서울 모터리움에는 텅 빈 사무실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특히 그는 “해외수출은 아예 올스톱”이라고 덧붙였다.

나 이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엔카닷컴의 비대면 거래 ‘엔카홈 서비스’를 주목했다. 그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거래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람과 만나 거래하는 것보다 신뢰도가 낮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업계를 통해 차량에 대한 진단과 보증이 가능하고, 추후 환불까지 되니 오히려 더 믿고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환불되는 건수는 흔치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수치로도 중고차비대면 거래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케이카가 지난 4월 말 ‘중고차 온라인 구매’를 주제로 성인남녀 360명에게 설문한 결과 총원의 72.1%에 달하는 260명이 ‘중고차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중고차를 온라인 구매할 수 있는 이유로 ‘브랜드를 믿을 수 있어서’(32.6%), ‘보증 서비스가 있어서’(32.2%), ‘환불이 가능해서’(23.3%), ‘매장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6.2%) 등을 꼽았다.

케이카는 지난해부터 중고차 비대면 거래를 시작하며 주목을 받았다. 케이



1일 오후 서서울 모터리움 입구

/백지연 기자

카의 대표 비대면 서비스인 ‘내차사기·내차팔기 홈서비스’는 지난 4월까지 누적 신청고객 55만 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현대글로벌비도 지난달 비대면 중고차 경매 서비스 ‘오토벨 스마트옥션’을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컴퓨터나 휴대폰 등 인터넷 연결이 되는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경매에 입찰할 수 있다.

중고차 업계는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비대면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최근 비대면 거래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했다고 밝힌 20대 A 씨는 “오히려 매장을 찾았다 괜히 떠밀려서 차를 구매할까 걱정이었다”고 전했다. 이

어 그는 “비대면 거래를 통해 거래하니까 부담도 적어 좋더라”며 “다음에도 중고차를 구매하게 됐다면 비대면 거래를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대면 거래를 이용한 중고차 거래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아직 비대면 거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도 차량 구매는 실물 구매가 낫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이에 다양한 업체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불 조치까지 내걸었지만, 우려를 잠재우진 못했다. 중고차 비대면 거래를 더 고도화·다양화하기 위한 업체들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백지연 수습기자

ysw@metroseoul.co.kr

초경량 88g·100인치 이상 대화면 LGU+, ‘엔리얼 라이트’ 하반기 출시

(AR글라스)

8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체험기회 제공
게임·유튜브 등 다양한 앱 멀티 사용

LG유플러스는 증강현실(AR) 글라스 전문 제조기업 중국 엔리얼과 함께 일반 소비자용(B2C) 증강현실(AR) 글라스를 올 3·4분기에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출시예정인 제품은 엔리얼의 AR글라스 ‘엔리얼 라이트’다. 88g의 무게로 가벼우며 가상현실(VR)과 달리 렌즈를 통해 앞을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8일부터 전국 24개 매장을 시작으로 AR글라스 ‘엔리얼 라이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체험 매장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매장에서는 AR글라스를 직접 착용하고 360도 UX(사용자경험)를 통해 고해상도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100



모델들이 AR글라스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인치 이상의 화면으로 볼 수가 있다. 크기 변화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R 줌비 게임을 실행하거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앱을 자유롭게 배치해 멀티로 사용할 수도 있다.

LG유플러스 송대원 미래디바이스 담당 상무는 “기존 AR글라스는 높은

가격대와 무거운 무게, 콘텐츠의 한계로 인해 일반 고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엔리얼 라이트’를 세계 최초로 B2C 상용화할 계획”이라며 “중소개발사에게 AR글라스 앱 개발과 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삼성전자, TV 포장재 업사이클링 공모

에코팻하우스챌린지

‘환경보호 가치’ 소비자가 직접 실천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 포장재를 활용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보는 ‘에코팻하우스챌린지’ 공모전이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부터 전 세계에 판매되는 라이프스타일 TV의 포장 박스에 도트 디자인을 적용하고, 도안을

제공해 소비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내 조립할 수 있도록 ‘에코 패키지’를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

에코팻하우스챌린지는 에코 패키지를 활용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반려동물 집이나 소형 가구를 디자인하고 제작해 봄으로써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소비자가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마련한 업사이클링 공모전이다.

응모 방법은 오는 30일까지 에코 패

키지로 작품을 만든 후,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3장 이상의 작품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에코 패키지가 적용된 삼성 라이프스타일 TV를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포장재를 활용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밖에 삼성닷컴 홈페이지에 에코 패키지를 신청해 응모할 수도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응모자 전원에게 발달장애인 예술가를 발굴하는 ‘키뮤스튜디오’와 함께 제작한 에코백·젯지·메모패드 등 ‘세이프 더 월드’ 한정판 에디션을 제공한다.

/김수지 기자

LG전자, 실속형 스마트폰 해외진출 본격화

캐나다에 ‘LG K61·LG K41S’ 출시

LG전자가 캐나다에 실속형 스마트폰 2종을 출시하며 실속형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낸다.

LG전자는 벨, 비디오펀 등 캐나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LG K61’, ‘LG K41S’ 등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제품은 앞서 지난 5월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시장에 출시됐으며 LG K61(한국 모델명 LG Q61)은 지난 달 말 국내에도 출시됐다. LG전자는 2분기에 유럽, 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에도 신제품 2종을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실속형 스마트폰 2종은 후면에 표준, 초광각, 심도, 접사 등 4개의 렌즈를 탑재했다. 고객이 후면 퀴드 카메라를



LG K61.

/LG전자

사용하면 초광각부터 접사까지 다양한 사진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

LG전자는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고객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두 제품 모두 6.5형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또 LG K61, K41S 각각 19.5대9, 20대9 시네마틱 비율을 구현해 몰입감을 높였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쌍용차, 군 지휘차량 공급계약 체결

렉스턴 스포츠, 작전지휘 능력 강화
연말까지 각급 부대로 600여대 인도

쌍용자동차가 대한민국 국군 지휘차량으로 새롭게 선정된 렉스턴 스포츠의 작전지휘 능력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오는 7월부터 실전 배치를 위한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각급 부대의 지휘차량으로 보급될 렉스턴 스포츠는 기본적인 주행성능과 안전성은 물론 통신연용 및 기동지휘소 역할 등 다양한 작전환경을 상정한 야전 적합성 평가를 최우수로 통과해 선정됐다.

초고강도 퀴드프레임이 적용된 렉스턴 스포츠는 e-XDi220 디젤엔진과 쌍용차 고유의 4WD 시스템 4트로닉이 조합, 앞선 험로주행능력을 갖춰 산악을



국군 지휘차량 렉스턴 스포츠 정측면.

비롯한 야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렉스턴 스포츠는 탑승인원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면서도 실내 이동편의성을 높였고 도강능력을 증대했다.

쌍용차는 올 연말까지 각급 부대로 600여대를 인도하고, 교체 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